

공현 후 5주일(연중 5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327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8쪽 집 전 자
†죄의고백 9쪽 다 함 께
†영광송 12쪽(C곡)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구원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이들을 고치시어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1독서 이사 40:21-31 말 은 이
성 시 시편 147편 다 함 께



- 1 알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노래 얼마나 좋으냐.
○ 우리 하느님, 그 찬미 얼마나 부드러우냐.
 - 2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신분,
○ 흠어졌던 이스라엘을 모아들이시니분,
 - 3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 터진 상처를 싸매 |주시는-분,
 - 4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 낱알이 이름을 붙여 |주시는-분,
 - 5 힘센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 힘 좋은 장정의 다리도 반기지 |않으신-다.
 - 6 당신 두려운 줄 |아는사람,
○ 당신 사랑 믿는 사람, 그들만을 |반기신-다.
-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멘

2독서 1고린 9:16-23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마르 1:29-39 말 은 이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19쪽 다 함 께
†봉헌성가 510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0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2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5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6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27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630장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29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29쪽 집 전 자
†파송성가 392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2월 4일)	다음 주일(2월 11일)
1독서	이숙영	김병재
2독서	홍종분	권용준
대 도	류한신	김운권
다음주일 전례독서	열왕하 2:1-12 시편 50 2고린 4:3-6 마르 9:2-9	
성 가	257 236 607 277	
복 사	최하현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4조> 유정훈 김승현 이진봉 김영란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2월 4일 공현 후 5주일(연중 5주일) · 나해 · 녹색

제28-5호

하느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



복음서 저자 마르코는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예수님의 전승 자료들을 자신의 편집 사상으로 재단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엮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책을 써 내려가야 할지 고민했을 텐데, 마르코가 예수님의 역사를 서술할 때 품었던 가장 큰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였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마르코는 복음서의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을 치밀하게 계산해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목(공생애)을 3년 정도 기간으로 그리는 다른 복음서의 구성은 마르코 복음에서 여지없이 깨집니다. 공생애에 앞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을 다루는 마태오, 루카복음서와 비교할 때 시각이 펍 다릅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벌이신 시절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복음서에 굳이 그 이전의 이야기를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활동과 일(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도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르코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 분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시며 하느님의 뜻,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길을 걷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빠른 발걸음이

느려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병든 이들, 몸이 아픈 이들을 쓰다듬고 고쳐주실 때입니다. 마귀와 악령으로 인해 영이 비틀어진 곳에 예수님은 멈춰 서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깨진 곳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영이 비틀어진 곳에서는 큰 소리로 꾸짖어 혼내시는가 하면, 몸이 아픈 곳에서는 조용히 곁으로 가서서 따스하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쉬지 않고 걷는 중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처지를 허투루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짧은 생애의 긴박한 선교 사명 속에서도 주님의 눈과 귀와 감각은 늘 다른 사람과 그들의 처지를 향하여 세심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예수님의 구체적인 활동과 일을 이어받기를 원하며 복음서를 엮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귀와 손길은 늘 다른 사람과 그들의 처지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하느님의 일이었습니다. 내 시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병자를 위한 기도일 (2월 11일)

기도서에 적힌 <병자를 위한 기도일>(2월 11일)은 낯설고 새롭습니다. 전례 색깔도 '자색'이라고 친절하게 지시합니다. 교회마다 주일 전례나 매일 기도 때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이날을 따로 정했을까요? 어떤 달력은 좀 더 세심하게 '세계 병자의 날'이라 적기도 합니다. 건강 관련 세계 단체가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일은 천주교의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이 제정하여, 1993년 2월 11일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다른 교단과 사회단체에 널리 퍼졌습니다. 성공회는 천주교 다음으로 가장 먼저 이 축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차리고 교회력에 넣었습니다.

교종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 하루 온종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날을 가졌으면 합니다." 당시 교종 자신도 진행형 신경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 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기도일을 2월 11일로 선택한 연유도 있습니다. 프랑스 루르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성모 마리아 발현 기념일과 겹칩니다. 1858년 루르드 마을에 열네 살 먹은 소녀 버나뎃 수비루에게 성모께서 세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이후로 이곳은 많은 사람이 찾는 순례지가 되었고, 순례자 중에 병이 나은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녀가 된 버나뎃은 결핵에 걸려 고통 받다가 서른다섯의 나이로 수녀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병자들을 위한 기도일의 연원에서 세 가지 뜻을 살핍니다.

첫째, 이날은 '병자들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날'입니다.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그 고통을 생각하며 하느님께 봉헌하라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종교는 종종 병자의 치유와 기적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성서에도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서와 교회 전통은 치유를 함부로 말하지 않고 고통에 관한 깊은 생각으로 초대합니다. 고통 자체를 하느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그대로 바치는 일이 신앙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의 치유 기적 핵심에는 측은지심과 축복이 있습니다. 병약자들이 소외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병고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선언합니다. 예수께서는 고통을 축복하시고 그 가치를 새롭게 선언하십니다.

둘째, 병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기도일을 제정한 교종도, 성모 발현의 복된 증인인 소녀도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교종은 파킨슨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소녀는 수녀가 되었지만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의 치유를 받았던 이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있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에 들든지 건강하든지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인은 이 시차를 두고 누구는 축복이 덜하고, 누구는 축복을 더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 차이가 사람에게 큰 안타까움이지만, 우리마저 죽으면 우리가 품고 기억하는 안타까움도 사라집니다.

셋째, 사람은 있어도 하느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의 고통이든지, 짊어지 길든지, 생명은 그 누구도 하느님 앞에서 잊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나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봉헌하는 일입니다. 우리 생명을 하느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 슬픔, 그리고 병약함과 고통마저도 우리는 봉헌물로 하느님께 바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15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연중절기 전례 안내

전례색: 녹색 / 전례곡: C곡 / 송가: 영광송

◆ 설날 조상 추모 성찬례

2월 10일(토) 오전 10시 / 성전

◆ 사순절 첫날 재의 예식 및 감사성찬례

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 성지가지 회수

가정에 있는 성지를 교회로 가져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 전례에 사용합니다.

■ 알림

◆ 2월 교회위원회

오늘(4일) 오후 1시 40분 / 어린이 예배실

◆ 교회위원회 결의 사항 안내

전교우 여름 신앙 수련회 개최

일시: 2024년 7월 20일(토) ~ 21일(주일)

장소: 강촌 피정의 집

◆ 전교우 성서교육

오늘(4일) 오후 1시 / 성전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본 안양 안산교회 임원단 모임

오늘(4일) 오후 3시 / 산본교회

◆ 청년회 모임, 학생회 모임 시작

지난 주일부터 매월 1회(넷째 주일 오후)

청년회 모임과 학생회 모임을 따로 진행합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교무구 위원회

2월 18일(주) 오후 3시 / 수원교회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형석(5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2,020,000원
김동준/이선자 김은하 김준우/조장은
백남진/박선희 이상현/최미혜 이은경 허훈제
정국진/이숙영 조준행신부 최용준신부/백기은

■ **주일헌금** 105,000원
김승현 류한신 박종례 백옥경 임혜지 장성한
장재현 장태현 최순덕

■ **주일학교** 유아윤 유아현 15,000원

■ **감사 헌금** 200,000원
김도환 이연학 이은경 차준섭신부/김승숙 최순덕

■ **특별 헌금** 350,000원
양초봉헌: 권순호 류한신 박종례 백옥경 이선자
이윤식 정연창 조준행신부 최용준신부
백옥경(인천나눔의집) 이윤식(아론기금)
최미혜(늘푸른복지관)

<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주간전례독서 (2월 5일 ~ 10일 / 연중 5주간)

	독서	복음
5일(월)	열왕상 8:1-7, 9-13	마르 6:53-56
6일(화)	열왕상 8:22-23,27-30	마르 7:1-13
7일(수)	열왕상 10:1-10	마르 7:14-23
8일(목)	열왕상 11:4-13	마르 7:24-30
9일(금)	열왕상 11:29-32	마르 7:31-37
10일(토)	야고 4:13-17	마태 6:19-21,25-34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

◆ 새교우(예비 신자) 이요한 전아영